

노사협의 만족도조사 설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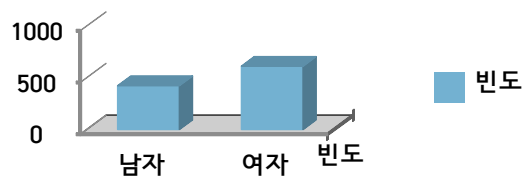
(작성일: 2021. 4.)

본 설문분석 자료는 2021년 3월 8일부터 19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 노조원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내용이며, 분석도구는 유레카 E-STAT 2.0,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 문항별 설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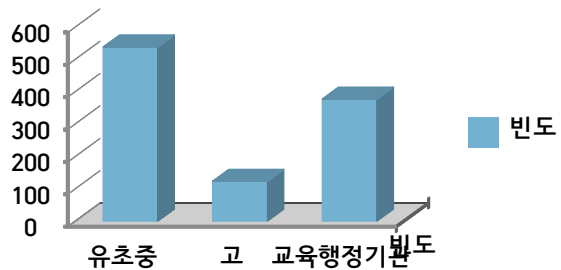
문항1) 귀하의 성별은?(N=1,035)

성별	빈도	백분율
남자	423	40.87
여자	612	59.13
합계	1,035	100



문항2) 귀하의 근무처는?(N=1,035)

근무처	빈도	백분율
유초중	537	51.88
고	122	11.79
교육행정기관	376	36.33
합계	1,035	100



문항3) 귀하의 근무지역은?(N=1,035)

근무처	빈도	백분율
군지역	328	31.69
시지역	707	68.31
합계	1,035	100



○ 2019년 제2차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실시된 **필수보직기간(한 기관 최소 근무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항4~문항7)

문항 4(N=1,035)

현재 1년 6개월(울릉지역 1년)인 필수보직기간에 만족하십니까?

척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237	22.90
그렇지 않다	245	23.67
보통	152	14.69
그렇다	287	27.73
매우 그렇다	114	11.01
합계	1,035	100

⇒ 현재 필수보직기간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 4’는 부정적인 견해가 61.26%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필수보직기간(2년) 설문조사¹⁾ 시 불만족도 90.22%보다 현격히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문항 5(N=401)	척도	빈도	백분율
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기관적응 및 역할 수행에 적절한 기간이라 생각	247	61.59
	전문행정 수행에 적절한 기간이라 생각	23	5.74
	1년은 짧고, 2년 이상은 길다	130	32.42
	기타	1	0.25
	합계	401	100

⇒ 현재의 필수보직기간을 만족하는 401명은 기관적응에 적절한 기간이라 생각하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1년과 2년의 중간 지점의 기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문항 6(N=632)	척도	빈도	백분율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필수보직기간 1년이 더 적절	569	90.03
	필수보직기간 2년 이상이 더 적절	38	6.01
	학교 적응 기간이 짧음	13	2.06
	기타	12	1.90
	합계	632	100

⇒ 현재의 필수보직기간을 만족하지 않는 632명 중 90.03%가 필수보직기간 1년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2년 이상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은 6.01%에 그쳤다.

문항 7(N=1,035)	척도	빈도	백분율
가장 선호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무엇입니까?	1년	625	60.39
	1년 6개월	342	33.04
	2년 이상	68	6.57
	합계	1,035	100

⇒ 문항 4, 5, 6과 관련하여 가장 선호하는 필수보직기간을 묻는 설문에서는 여전히 1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0.39%였으며, 1년 6개월이 33.04%, 2년 이상이 6.57%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필수보직기간을 6개월 더 단축하는 것이 노조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정책방향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의견에 대하여 도교육청 인사부서에서는 군지역 인사의 애로점(찾은 인사 변동)을 이야기하며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Q. 시·군지역 근무자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선호도의 차이가 있나? NO

<설문조사 3> 귀하의 근무지역은? (군지역:328명, 시지역:707명)

<설문조사 7> 가장 선호하는 필수보직기간은?

<상관분석>	근무지역	선호 필수보직기간
근무지역	1	
선호 필수보직기간	0.019 ²⁾	1

1) 2019. 6. 14(금)~18(화) 기간 동안 노조원 1,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문항 3’와 ‘문항 7’의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상관분석을 실시해보았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필수보직기간 선호도와 근무지(시군)에 따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군지역에서 더 긴 필수보직기간을 선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 2019년 제2차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실시된 **자율연수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항8~문항10)

문항 8(N=1,035)	척도	빈도	백분율
2020년 자율연수경비를 사용하셨나요?	사용	573	55.36
	미사용	462	44.64
	합계	1,035	100

⇒ 설문에 의한 자율연수경비의 사용은 55.36%로서 거의 절반의 인원이 사용하였다. 좀 더 높은 사용을 위해 꾸준한 홍보와 인정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항 9(N=1,035)	척도	빈도	백분율
개인에게 지급되는 자율연수경비 금액(200,000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그렇지 않다	116	11.21
	그렇지 않다	133	12.85
	보통	357	34.49
	그렇다	323	31.21
	매우 그렇다	106	10.24
	합계	1,035	100

⇒ 자율연수경비 금액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답변 41.45%, 부정답변 58.55%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연수경비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 10(N=1,035)	척도	빈도	백분율
자율연수경비 인정범위(직무관련)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183	17.68
	그렇지 않다	251	24.25
	보통	298	28.79
	그렇다	224	21.64
	매우 그렇다	79	7.64
	합계	1,035	100

⇒ 자율연수경비 인정범위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답변 29.28%, 부정답변 70.72%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정범위의 확대(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제2차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실시된 **사서직렬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항11~문항12)

문항 11(N=1,035)	척도	빈도	백분율
사서직렬 여부	사서직렬이다	54	5.22
	사서직렬이 아니다	981	94.78
	합계	1,035	100

2) 상관계수값(r)과 상관성 정도
 ±0.9이상: 매우 높은 상관관계
 ±0.2~0.4미만: 낮은 상관관계

±0.7~0.9미만: 높은 상관관계 ±0.4~0.7미만: 다소 높은 상관관계
 ±0.2미만: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

문항 12(N=54)
(10번 문항에서 사서직렬 선택 시) 주말 일용인부임금 예산 편성으로 근무여건이 개선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척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4	7.41
그렇지 않다	3	5.56
보통	8	14.81
그렇다	16	29.62
매우 그렇다	23	42.60
합계	54	100

⇒ 인력지원 예산 편성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서 긍정답변이 72.22%로 높게 나와 처우개선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 2019년 제3차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실시된 **시설관리직렬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항13~문항15)

문항 13(N=1,035)
시설관리직렬 여부

척도	빈도	백분율
시설관리직이다	102	9.86
사서관리직이 아니다	933	90.14
합계	1,035	100

문항 14(N=102)
(13번 문항에서 시설관리직렬 선택 시) 2020년, 2021년에는 학교회계 예산에 외부용역비가 편성되어 시설관리업무 개선이 이루어 졌다고 생 각하시나요?

척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22	21.57
그렇지 않다	16	15.69
보통	30	29.41
그렇다	23	22.55
매우 그렇다	11	10.78
합계	102	100

⇒ 시설관리업무 개선을 묻는 설문에서 긍정답변 33.33%, 부정답변 66.67%로 나타나 학교 단위에서 예산확보 및 시설관리직 중심의 업무 집행 방안 모색 등이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문항 15(N=102)
(13번 문항에서 시설관리직렬 선택 시) 시설관리직렬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업무 교육훈련이 확대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척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41	40.20
그렇지 않다	25	24.51
보통	19	18.62
그렇다	13	12.75
매우 그렇다	4	3.92
합계	102	100

⇒ 시설관리직렬 교육훈련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 긍정답변 16.67%, 부정답변 83.33%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연수프로그램개발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20년 제1차 및 제2차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실시된 **교육행정기관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항16~문항20)

문항 16(N=1,035)
교육행정기관 근무 여부

척도	빈도	백분율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다	374	36.14
교육기관(초,중,고)에 근무한다	661	63.86
합계	1,035	100

문항 17(N=374)
(16번 문항에서 교육행정기관 근무 선택 시) 숙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 근무일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쉬고 있습니까?

척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30	8.02
그렇지 않다	27	7.22
보통	78	20.86
그렇다	122	32.62
매우 그렇다	117	31.28
합계	374	100

⇒ 토, 공휴일 숙직 근무 후 휴무실시에 대해서는 63.90%가 휴무를 실시한다고 답하였으며, 36.10%가 휴무를 실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8(N=374)
(16번 문항에서 교육행정기관 근무 선택 시) (17번 문항에서 부정답변일 시) 휴무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척도	빈도	백분율
업무가 바빠서	143	38.24
상급자의 눈치	67	17.91
규칙개정 알지 못함	16	4.27
기타	148	39.58
합계	374	100

⇒ 휴무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타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숙직을 하지 않는 여성공무원과 기관근무자의 답변이었다. 이를 배제하고 판단해 본다면 가장 큰 원인은 업무가 바빠서 그 다음으로는 상급자의 눈치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 19(N=374)
(16번 문항에서 교육행정기관 근무 선택 시) 일직근무자(토,일,공휴일)들이 근무 후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것이 일-가정양립과 양성평등에 적절한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5	4.01
그렇지 않다	22	5.88
보통	42	11.22
그렇다	101	27.01
매우 그렇다	194	51.88
합계	374	100

⇒ 일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실시에 대한 설문에는 긍정답변이 78.89%로 높게 나왔으며, 부정답변은 21.11%에 그쳤다. 여성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체휴무의 실시를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 20(N=374)
(16번 문항에서 교육행정기관 근무 선택 시) 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도 1년에 3일 기관학 습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0	2.67
그렇지 않다	16	4.28
보통	30	8.02
그렇다	90	24.06
매우 그렇다	228	60.97
합계	374	100

⇒ 교육행정기관 기관학습휴가에 대한 긍정답변은 85.03%로 아주 높은 비율로 찬성을 하였으며, 이는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학습휴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서술형 문항(문항21~23)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항21]	7대 노조 출범 후 개별 직렬교섭안이 다루어 지지 않은(전산, 시설, 보건, 사무운영, 운전, 조리, 기타직렬) 직렬에 속하신 분들께서는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규모 이상 학교(ex:1000명 이상)에 보건직 배치 희망, 근무지가 교육지원청 및 본청으로 한정적임
	운전직렬 자유학구제하면서 운행거리와 시간은 많이 늘어나는데 인력과 차량은 그대로입니다 개선부탁드립니다
	직렬별 현황이나 청에서의 계획 때문일수도 있겠지만 다수직렬에 비해 소수직렬의 승진이 너무 느린거 같습니다. 차이가 많다보니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근로의욕 역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만족할수 있는 승진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차량운행업무시 배식업무까지 해야하는 곳도 있고 상하차도 운전직이 모두 해야하는곳도 있는 등 표준적인 업무의 범위가 불명확한점 개선 요구
	정원이 많이 모자라는데 필요한 정원만큼 채용을 원합니다
	전직시험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운전원 정원을 충당해주세요
	운전직렬: 급식차량 배달로 인해 점심휴게시간이 부족한 운전원에 대한 처우개선
	학교 관광소속의 버스를 연간단위로 입찰을 시행할때 기존에 하시던 해당 버스에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같은 조건으로 입찰계약하여 처음오시면 바로 버스운행 업무에 차질이 많습니다
	시설직의 대우가 너무 형편 없습니다. 일을 경감하려면 외부용역비를 편성하여 일을 좀 줄여주세요. 저희가 쓰레기분리 수거까지 하는건 너무 자게감이 듭니다.
	외부용역비를 필수로 편성해서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 주면 좋겠음
	행정직렬이 현행 업무 많음.(운전,시설)직으로 꼭 처리해야할 현장업무만 처리 할려고 하고 컴퓨터로 처리는 하지 않을려고 하는 모든것들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개별 직렬교섭안을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25년씩 근무해도 승진 힘든데 같은 조리사 신규들과비교 승진차이에 스트레스받음
	승진소요 년수가 길고 각 직렬에서 사무직군 시설관리는 승진이 너무 정체 되어있다
	시설관리직렬 외부용역비 편성되지도 않은 학교가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필수항목으로 지정하도록 건의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교사 서류 심부름, 마스크 수령등 기타 심부름같은 업무의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시설관리직렬의 업무를 명확히하여 줄것을 건의합니다.
	운전직은 근무시간은 가장길고 학교에서 본업외의 업무를 다수 요구하여 수행중이나 인사 승진은 타직렬 후임보다도 뒤쳐져 불합리성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교육청에2호차를 지원해주세요...연가낼때사람구하기가힘들어요.
	조리사대체를쉽고편안하게구할수있게(예;하루오는데보건증하라는등)융통성있는대안이필요
	운전직 호봉인정범위 개선 : 유사경력을 타지역의 사례를 비추어 개선해야 함. , 교육장 관용 차량 : 출퇴근업무 지시철회(시대도태적인 업무지시 반드시 개선필요)
	시설관리직렬입니다 사무실환경관련으로 말씀드리면 인셋실 좁은곳에 인셋기 사용빈도가많아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직 건의사항 1. 실내공기질 측정에 따른 수당지급(전문기관 용역 의뢰시 상당금액을 지출해야하는 정도의 업무강도를 담당함
	집합교육 또는 교육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부탁드립니다
	운전직렬 신규채용을 늘려야 함. 이유는 폐교, 통합, 정년 등으로 인원부족과 외부용역을 이용하면 저질의 일자리 양상과 고령의 운전자가 올수 있음.
	향후 운전직렬 많이 뽑아주세요
	시설직렬 대형학교 행정실 인력 배치
	3식학교 처우개선, 혼자조리하는 경우 시간알바사용 및 처우개선
	장거리 출퇴근을 할수밖에 없는 소수직렬에 주유수당이 지급되는 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인력 충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시설 및 공업직렬)
	교행직과는 달리 승진이 되지않아 근무의욕이 떨어지므로 승진확대가 절실함
	7급 자리를 더 추가확보해주셔서 동기들과 승진이 1년이상 차이나지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전직-계약직보다 신규 원합니다. 직업 등 마인드가 다릅니다.인사이동등 정규직이 오히려 눈치를 보는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 직렬만 왜 꼭 집어서 업무분장을 통보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조리직 격무지 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운전직도 지급될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그리고 피복비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입고 운전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유니폼 같은걸 사야 된다고 하는것 같은데요. 기준도 모호하고 없는데 입고 운전하면 운전복에 해당되는거 아닌지.
	운전직 공무원들의 휴식 공간 및 휴식 시간을 보장...신규채용 많이 해주세요.
	운전직렬 차량 운행에 따른 위험수당(농촌지역은 농기계, 어르신무단횡단등 위험요소가 비일비

재합니다.)
이번 인사평가 등에서도 보았던 행정직렬 외 직렬을 문장상 차별 말고 일반직 이란 직렬로 구분했으면 합니다(예 : 관리운영직군 조리 운전직 등 분류 지양)아울러 코로나로 실시하지 않는 사항이지만 향후 실시시 한마음 체육대회등에도 명칭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경북교육청 행정인 등 명칭 외에 공무원 일반직 등으로 명칭 사용에 신중을 당부드립니다)
직렬 통폐합이나 부족한 직렬간 이동 및 전직의 기회가 계속 있으면 합니다
승진아닙니까. 소수직렬 외면 그중 단연 운전직 승진정체가 심합니다. 우리는 기본적 처우가 아닌 차별적 처우에서 박탈감을 느낍니다. 노조탈퇴현상이 매우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노조는 어차피 행정직렬규모만으로도 유지가능함으로 차차 운전직렬과는 등을 돌리는게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제 얻을게 없던 상황에서 잃을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무운영직렬은 급수에 상관없이 행정8급과 동일한 자리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사무운영6급 정원을 떠나서 6급 퇴직자 인원만큼 승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월 인사에는 반영이 안되었네요.
지속적인 안전을 위해 매년 운전원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임차보다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효율적으로 생각됩니다.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렬별 승진차이가 심함.개선을 요구합니다.
보건직렬은 코로나로 아주바빠도. 항상 열외라는 처우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승진이 늦다
극소수직렬 기록연구사의 근무여건 개선(미배치지역이 많아 배치되어 있는 지역의 연구사가 2년마다 순환하면서 미배치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면 기관의 기록관리 연속성, 전문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매년 충원이 되어야하고 소수직렬 상위승진이 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다
최소보직 근무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혜택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산 직렬은 현재 급속승진 비율이 높고 이로인해 힘들고 어려운 본청 근무는 피하는 상황입니다. 승진정체가 조금이나마 해소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심삼십기간수당부분 에 대한 마무리
시설관리 운전 조리 5급진렬을강력하게추진을하시기바랍니다 일반직직군에속해있어도현재는평등차원에서신설추진바랍니다
조리직렬 삼식학교 근무하는 조리사입니다 .조리사는 공무원이라 새벽에 5시 30분부터 근무를 해도 야간수당도 없고 시간외수당도 1시간 제하고 부터이니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11시간 가까이 해야하며 토요일 근무도 매주하는데 4시간 30 분을 근무해도 4시간이며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 수당도 없어서 피로와 근로의욕저하
방학 중이라도 재택근무가 일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서직 증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조에 감사드립니다!지속적인 증원을 요청드립니다!
자율연수비용 금액이 지금현재 학원등에 필요한 금액에 너무 부족한면이 있습니다. 요리학원에등록하려면 자율연수비보다,개인사비더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율연수비를 업무 상관없이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직렬의 처우가 너무 불합리합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면 기술수당만 찾아보셔도 납득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서, 시설은 있는데 전산직렬과 관련된 문항은 하나도 없는지 궁금하네요
교육지원청에서만 근무하는 소수직렬에 대한 불공평한 처우 개선. 학교보다 더 많은 직무를 하고있음에도 처우개선은 학교 행정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청 직원들만의 별도의 처우개선이 필요함.
분명 학교보건법에 포함되는일을 시설일이라며 행정실에 일을 떠넘겨버리고 협조도 안해주시는데에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일을 협조라도 해주셔야할텐데 아예 넘겨버리시니깐요 .
사무운영직렬 승진이 너무 늦다(30년이 넘어도 사무운영7급으로 있어요, 처우개선 필요합니다.)
보건직은 교육청만 근무하는데 근무년수를 원하면 2년이상 있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직렬 특근 매식비 현금 지급
업무를 과중하게 떠넘기는 경향이 두드러 진다.
필수보직기간 1년으로 해주세요.
사무운영 직렬은 경력에 비해 상위 직급 승진 기회도 적고 타 직렬에 비해 소외감을 느낌
만기 근무 년수가 너무 짧습니다.예전처럼 5년이 적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시설관리직렬 특수성 때문에 현장 적응이 최소한 1년 ,2년 이 걸립니다. 그래서 3년째 자신감이 생기면 또 다시 이동해야 하는것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교육행정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사무운영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요. 학교에 근무하면서 사실 교육행정직보다도 더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교육행정직들은 지출, 예산만 하려고 합니까? 학교행정실에는 많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교육행정직 둘이서 예산과 지출만 하면 그외엔 업무는 우리들
수당 인상
운전직렬 연가,병가,특별휴가등을 사용시 대체인력 충당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미리 계획되

어 있는 연가,평가등은 대체인력을 구할수 있는 여유가 있을수 있으나 갑자스런 병가나 연가 시 또는 조사가 발생 되었을때 대체인력을 찾아서 주변 지인등 여러곳에 전화를 해봐야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운전직렬은 애매모호한 경우가 다소 많습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량지원실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1년6개월(행정)을 근무하고 무조건 행정과나 학교로 전보 내신서를 내어 전근을 가는 실정이며, 근무 기피부서로 서로가 난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향후 교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여 해결해야함을 건의 드립니다.
진급인원 확대
전산직렬 근무자의 기근무자 및 신규임용자의 의원면직이 많습니다. 소수직렬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승진적체 등의 현 상황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산직렬과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여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부탁드립니다.
시설직의 인사교류가 미비하니 개선이 필요
운전직렬입니다. 인력풀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2호차 상시인력 충원 부탁드립니다. 연가는 사용하라고 독려하면서 연가를 사용할 수가 없는 현실을 감안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운영은 승진정원이 타 직렬에 비해 너무 정제되어 있다. 업무는 타직렬에 비해 과다할 정도로 많은데 승진에서는 항상 뒤쳐져 있다. 업무를 많이 하는 직렬이 승진도 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상여금을 골고루 분등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승진이 15년 4월인데, 사무운영직렬은 15년 7월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행정직들은 15년4월 가능하고 사무운영직렬은 원래 안되나요?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사무운영 승진이 너무 지체되고있다. 30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 7급이다
6급 승진이 안됨
사무운영 직렬 승진안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것 것 같습니다. 사무운영이 교육행정으로 전환되면서 사무운영 인원이 줄어드니 교육행정 승진인원은 늘어나고 사무운영 승진인원은 줄어 현재 30년이 넘어도 6급 승진은 꿈도 꾸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 조리, 시설관리와는 근무년수에 따른 승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승진.승급이 매우느리고 승진한다고해도 처우개선은 아무것도 없음으로 보직에 불합니하다
시설관련 업무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지역청, 소속기관은 재량휴업일이 없어 학습휴가를 사용 못하는데 근무자들의 학습휴가 사용을 건의합니다
1인조리사는 없어져야하고 식수당 근무인원을 대폭 완화하여 급식실 근무인력을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동급식을 하는 곳은 일손이 더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식수몇명 줄었다고 조리원 1명을 바로 빼버리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곳은 시간제근로자를 쓰든지 또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운영직군입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한 의견을 드려봅니다. 사무운영직의 성과상여금 지급시 경력이 낮은 사람은 늘 성과등급이 낮습니다(항상 꼴지) 경력순으로 성과를 매기다보니 성과급 시즌만 돌아오면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집니다. 사무운영직의 승진은 근평순으로 켜서 승진 순위가 밀리지 않도록 우대해주되, 성과상여금은 (1,2,3)을 돌아가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22]의 의견입니다.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이 학교업무정상화보다 교원업무경감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센터 소속으로 지원업무를 하는 것보다 교원(교사 등)을 파견하여 학교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의 업무경감(계약제교원 채용, 과학실 지원 등)을 일반직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상대적 박탈감도 있습니다.
조리 - 소수직렬이지만 교섭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산직렬의 승진 적체가 심합니다.
조리직렬 2식교 이상 학교는 시간의 근무 수당 산정시 1시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업무의 특성상 쉽없이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운영 승진확대 부탁드립니다.
1인 조리학교 보조인력 지원(식당 및 조리실청소)
저는 조리직렬로 근무중입니다. 코로나로 식단을 간편식으로권유한걸로 아는데 간편식은 둘째치고 자율까지도 배식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서로 경쟁적으로 식단이 다양화되고 있어 조리실현실은 너무나 힘이드는 상황입니다. 배식시간은 길어지고 자율까지 배식을 하다보니 하루하루가 너무힘이듭니다.
인사 교류기간을 필수 1년, 최대 5년으로 하여 인사의 유동성이 좀더 좋아졌으면 합니다.
성과상여금 등급을 결정할때 고등에서 근무하게 되면 운전,조리,시설관리 이렇게만 묶어서 평가를 하니깐 경력이 짧은 경우에는 항상 제일 낮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업무강도를 봐서 누가 더 힘들고 덜 힘들다고 할 수는 없지만 꼭 이 중에서 B등급을 줘야하는지... 안그래도 삼식이라서 힘든데 항상 제일 낮은 등급을 받다보니 힘이 빠집니다
운전직렬은 업무 특성상 연가사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운전주무관이 아는 사람을 통해 구한다고 해도 통학차량이 어린이를 대상으로하기에 일반 화물과 버스보다 좀 더 안전한 운전능력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대체인력을 구해 연가를 가도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교육지원청 소속의 운전주무관을 늘리거나 운전직 퇴직자를 활용해 운전주무관의 연가사용을 쉽게

해주십시오
현장규모에 맞게 조리원을 배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배식시 힘들
유치원 급식실 인원배치에 문제가 많습니다. 점심후 설거지 청소 간식후 설거지 청소가 있는데 1식을 하는 초등보다 인원을 적게 주는데 말이 되는 겁니까 시정조치가 꼭 되어야하는 부분입니다 적극 건의합니다
조리직렬에서 특히 신입조리사가 학교급식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됐으면한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며칠이 아니라 한달간이라도 실습을 통해 짜임새있게 멘토에게 배울수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조리직. 고등근무 개선을 요청합니다
운전직렬 에도 근무여건 사항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소수직의 의견을 잘 관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수 직렬의 경우 군휴직, 출산휴가 등 공석 발생시 업무 과중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남자조리사 사무실및 휴식공간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곳에 참고해서 설치하겠다고 지난번 교육감대회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기존에 학교에서는 계속 조리원들과 같은공간을 사용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학교에도 컨테이너 설치등으로 남자조리사 휴게및 사무공간을 확보해주세요
상위 6급 비율을 교육행정직렬과 같도록 맞추어 주세요
운전원 대체 일력이 너무 없습니다. 가정에 급한일이나 질병,사고로 인한 대체일력을 학교에서 대체마련을 하라는데 작은 소규모 마을에서 대체일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멀리서 오려고 하지도 않고 예전처럼 지역청에 보조일력을 마련하여 급할때 바로 불러 사용할수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직렬의 인원 확충을 부탁드립니다.
승진, 성과순위 등 소수직렬에 대한 처우개선도 신경써주세요.
교육지원청에 2호 운전원이 있으면 합니다.
말해야만 아는 걸까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없는 직종 취급받는거. 더 무슨말이 필요할까요?
학교의 시설관련 예산중 일정액이라도 시설관리직이 직접 편성,집행해야하고 그에따른 교육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함..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소지가 다분한 전지, 제초,배수로 정비 일은 시설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마땅함..쓸데없는 예산낭비(명정한 가구,전자기기,비품 교체 등등)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한 일임..
중.고 같은 경우엔 초등보다 음식 양이 많은 걸 고려해 조리원 배치 인원 규정을 달리 적용 검토
운전직렬도 위험수당 지급해주면 좋겠습니다. 초과수당 1시간 공제하지 말고 실제 일한 것 만큼 지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시간 일하고 1시간 공제는 노동력 착취 아닙니까? 2시간 일했으면 2시간 그대로 지급해 주세요. 일찍출근하고 늦게퇴근하고 싶은 운전직렬 주무관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을 정상 참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리직렬-영양사의 갑질에 대비하여 조리사의 권한을 높이는 방안 마련
업무관련한 기능능력을 높이기위하여 업무관련 자격증취득에 필요한 학원비지원을 건의 요청합니다 (시설관리자가 직접 전기콘센트 정도 교체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시 책임이따름) 기능사 자격증 취득시 기사 자격증과 동일한 수당지급 요청 바랍니다. 매년 소나무 전지 및 전지 현장연수 개설 요청(기간3~5일정도)
도교육청 교육안전과, 감사관 에 보건직(6급) 자리 및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보건7급 자리를 늘려주기 바란다.
사무운영 근속승진 최소 소요년수 단축
연수참여 여부 명단통보시 '기타'로 표기되고있습니다. 정확한 직렬을 기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관련 인사 및 복지혜택 반영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7급입니다...행정실에 개인 책상과(없는 곳도 있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시설직도 필요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시설관리직렬도 전직이 가능하면 좋겠고 안된다면 일반직다운 업무를 주었으면합니다
지역적 불균형 배치로 인하여 3식 고등학교가 많은 지역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타 지역에 비하여 승진의 기회가 낮으며, 잦은 인사로 인하여 평균근무연도의 절반이상이 3식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있어서는 항상 불리한 입장이 되고 있다. 지역적인 인력배치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보상부분이 이루어졌으며 하는 바랍니다
시설관리직렬이 학교내 조무일이 아닌 전문적인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점차적으로 전문화되어 가는 학교시설관리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근무하도록 하여주시십시오.
학생수 학급수 예산을 강조하면서 일선소규모학교에 혼자 근무하는 행정실장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인원을 늘리면서 시설관리직렬의 자리 없애는 경우는 무엇인지. 소규모 학교라도 학교 안밖으로 할일은 많은데 계약직을 채용해서 해소하려고하는데 제가본바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특히 울릉지역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시설관리 직렬의 자리이동을 예외로 하는것이 맞다고보니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출입자 발열체크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청과 학교만을 대상으로 보조인력을 지원한다고 공문이 왔던데, 많은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어째서 배제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도서관에도 인력을 지원해주십시오.

	사무운영직 30년이상근속자 6급 근속 승진, 도서관근무자 민원수당요구
	소수직렬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직렬에 시급한 일들을 협이하여 채우개선이 이루어 줘야 할것 같습니다.
	학생수 부족으로 일선 시군 초등학교들이 자유학구제로 바뀌면서 통학차량의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가 늘어났습니다 등교 운행시간이 2시간에 달하는 등 수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운행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행거리 및 시간을 고려한 차량의 재배치나 차량 보충이 필요합니다
	전 공업직입니다, 소수직렬 너무 소외 받고있어요, 시설,공업사무관이 지역교육청에 행정지원과장(5급)밑에 있고 보직도 담당으로 되어있으니, 그 밑에 시설,공업6급이 보통 4명-6명이나 있는데.. 타직렬에 비해 한급수가 낮아요. 검토 좀 해주세요.
	교육현장을 잘 살펴보고 직렬배제 ,차별없는 노조로 만들어 가 주시기바랍니다.
	관리운영직군이 소수 직렬이라고 승진이 안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됨.또한 기회조차 없는 것 또한 부당한 처사라 생각됨.
[문항22]	학교지원센터가 2021년 1월부터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무조건적인 학교 업무 이관은 지양해나함. 현장에 맞는 업무는 현장에서 해야한다고 봄
	교원업무경감에만 치우침 행정직 업무 경감을 위한일도 필요(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시설관련)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
	교사의 업무중 과중 된 업무를 철저히 파악해서 도움을 줘야하지만 아무업무나 다 가져와서 센터가 또다른 업무 과중이 되면 안됨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시기로 바람
	교사업무 줄이려고 왜 행정직이 그 일을 떠맡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학폭은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것이 맞는듯 합니다 학폭업무가 왜 행정직들이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지원하고있는 학교도서관지원업무까지 포함
	교사들의 행정업무 지원만 이뤄질 것이 아니라 행정직들의 행정업무 지원도 좀 해주세요. 시설직(시설관리직 말고) 을 배치하여 학교 소규모 공사의 설계, 설계검토, 관리 감독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에 학교지원센터가 배치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행정직 주무관들이 장학사 밑에서 일 안하게 해주세요. 강원교육청의 모범사례 참고해주세요.
	교원지원업무인 행정업무도 지원가능하게 범위가 넓어야 함 안그러면 학교지원센터가이닌 교원지원센터임
	각 시설직렬은 학교사정상 이라는 이유를들어 행정업무도병행하는경우가 많음. 실정에 따라서 허가하고도 하지않기도함. 누구는 행정일까지해가며 일하는데 누구는 안하고 형평성문제 승진 순위에도 전혀반영되지않고 일만 이일저일 죽어라함. 업무분장도 통일이 있어야된다고 생각됨
	업무 매뉴얼 및 23개 시군 공통 업무 마련 후 지역 실정 맞는 업무 배정 교육감님 공약이라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 사기저하 시키는 지원센터 전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추후 일반직 내 설문조사 및 용역의뢰하여 지원센터 역할 방향 마련 교육감님 공약이라 교육지원과장 장학사 등은 실적만들려고 지원센터 직원 사기 저하 만들고 있음
	무조건적인 학교지원으로 인한 업무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행정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실질적인 교사들의 행정업무보다는 교감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이 되고 있어 교사들의 업무경감이 없음
	학교에 시설이 없으면 당장 일이 안돌아 갑니다. 학교에 남고 싶은 사람은 남게하고 ..그리고 시설일이 밖에서는 일당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돈을 받고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수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함에 있어서 충분한 인력이 보충되어 원활한 업무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교육공무직 업무, 학교시설공사 원가 산출 등 하나의 카테고리를 떼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학교 공무직 업무 가져갔으면 함
	업무경감을 위해서라면 센터에 희망이 아닌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전학교의 한가지라도 추진 하길 바랍니다
	센터가 교원업무경감을 한다는데. 교직원업무경감을 해야할것이고. 교원업무는 교원이 행정직 업무는 행정직이 처리함이 바람직. 학교는 1,2월 업무과중인데 상대적으로 실적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음
	교원과 행정직원간의 다툼이 있는 업무부분에서 지원이 되면 학교구성원과의 갈등도 많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직을 넣어서 장학사 밑에두는건 아니라고 보며, 장학사를 충원하여 업무경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직렬에대안을 필요에적소대안필수대체인원조달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함. 단지 새로운 시스템에따라 어느 한 집단의 업무 과중은 되지 않아야 할겁니다.

학교지원센터는 학교업무경감보다는 교원업무경감이고 행정실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주무관으로 구성하여 교원들의 업무를 다른 방식으로 일반직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비취집니다. 행정업무는 점차적으로 복잡해지고 책임도 더 무거워지지만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은 교원에게만 해당되는 듯합니다.
교무실 업무만이 아닌 행정실업무도 폭넓게 요청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직종별 전문성 향상 독려
교육공무직 급여도 같이 해주세요
각종 공무직 대체인력이나 고무직 채용건을 대해해 주면 좋겠음.학교내 갈등이 많은 업무를 지원해주면 좋겠음,공채시 시험감독을 경북 북부등 타 지역 교행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인근 지역의 교행인들의 시험감독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덜어주고 고통분담을 나눌 수 있게 개선해 주시기 바람. 교육공무직 및 대체채용건 대행·학교내 갈등 많은 업무대행
센터에 근무 희망자가 지원해서 근무하면 좋겠어요.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규정등 변경해서 인센티브등 혜택을 주는방향으로 가면 좋아요
학교지원센터가 본 취지에 맞게 기능 하기 위해서는 학교지원센터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넘겨 받는 것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에 있어 필요한 적정 예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업무가 확실히 이관되어야 효과를 체감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부지역의 학교지원센터는 기존업무도 맡지않으려는 점.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보여 업무성과미비. 주무관들의 효과적인 정책의견표출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있다고 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계약건을 해주세요..전문성과 업무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학교지원센터가 교원의 업무경감에만 국한된 것이 맘에 들지 않으며 교사와 장학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반직과 교원 모두에게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소관부서에서 중심이 되어 지역청마다 주요지원업무를 일원화하고 특색업무를 추가해나갔으면함. 운영비도 지역청 규모별로 재원을 적절히 지원요청
교원업무 경감과 행정직 업무 경감 병행 실시가 필요함
센터를 행정지원과로 편성
학교지원센터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함.
학교공사 지원업무 할수 있도록 시설직 배치
각학교교무행정사를 적극 연계업무활성 지원센터로 행정사는 더 일이 줄어듬
교육공무직 업무를 담당했으면 좋겠다
학교의 자율성 침해 및 공문 남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학교에서 갈등이 많은 업무 이관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학교의 업무를 그대로 가져와서 대신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일만 해줘도 엄청 도움됨 1,2월에 업무 과부하
중요직무수당지급, 학교지원센터 기관독립
공무직원급여교육청일괄이관처리 요청합니다
교원업무경감화가 행정업무의 가중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다루기힘든 전문적인분야(각종채용.공무직급여 인사관리,시설 계약 등 업무)를 지원 해주셨으면
학교지원센터 근무 일반직 처우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은 하고도 공치사는 장학사가 다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교육지원과 소속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행정직이 근무하며 느끼는 소외감이 큼니다.
교육행정직이 해야 할 업무를 찾아야 함. 단순노동을 제공하는것은 안됨.
공무직 업무를 담당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실 업무가중
실질적으로 학교업무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수준입니다
업무다운업무를 했으면 합니다
7급 2명, 9급 1명등 총 3명이 근무하는데 그정도의 업무량인지 의문이 듭니다. 학교지원센터의 실효성이나 취지도 불분명해보입니다.
학교지원센터 직원 구성을 직렬별로 한명씩 구성했으면 합니다. 학교 현장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네요
교원지원위주만말고 일반직업무지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행정업무도 경감대상에 포함되어야함 지원분야도 더 느리도록
교원업무경감만이 아닌 행정직원업무경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원의 업무경감만 해당된다 생각함
전혀 도움이 안됨,
아직 명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지원업무를 한다면 전체 기관 업무를 파악하여 학교지원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보수적인 업무 분장및 체계에 획기적인 대안제시 교통정리

어차피 교원업무 경감 시키면 우리가 다 떠안게된다면 급여나 많이 뺏어와주세요
기관의 일을 사소한 일도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용역으로 한다면 일자리는 없어집니다. 주 인정신 중요.
행정직의 장기병가 휴직 등을 지원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업무경감에 큰 효과가 있는지 의문
안전과 관련되는 일은 우선적으로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올 해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지 말고 학교의 의견을 모두 모아 정리하여 실제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원과 행정직간의 관계가 상하로 굳어져 사기떨어짐
명확한 업무를 구분하길 희망.. 중복업무도 있는듯
지금 하는일이 없다. 왜있는지 모르겠다. 지원센터로 인하여 남은 사람들 업무가 가중되고 있 다.
실적을 앞세우기보다 동기와 과정 그리고 하고자하는 노력에 많은 칭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실제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쉽게 건의할 수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원편의행정으로 산정.행정실 업무 지원도 확대 실시하여야함
시설관리직의 권역별 임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관련 정원이 재배정없이 정원매치바랍니다
아직체계가 잡히지않는 상황에서 학교과학실 점검이 아니라 과학보조보다 못한 일반직업무에 자괴감이 듭니다 본인학교의 과학실은 과학보조선생님이 일차적으로 청소는 해야하지않나싶습 니다
좀더 센터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고려 후 명확한 업무분장등의 내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됨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함
지원센터에서 학교업무를 지원해야하는데 또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 행정실로 공문으로 자료요 청 수합등 책임이 넘어오지않길바랍니다
이제 시작이라 잘되고있는지는 모르나 일선학교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애매한 규모로 운영되어 큰 도움이 되지않는다. 인원을 늘려 확실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해줬 으면 좋겠다
권역별 학교도서관지원센터와 중복된 성격의 업무에 대한 구분 및 양기관 업무의 명확한 정립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원 인원을 늘려 실제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학교지원센터인지 교사지원센터인지 역할을 명확화 해야한다고 봄. 항상이름은 학교인데 행정 실 업무는 늘 배제되는것 같음.
학교행정업무경감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솔직히 아직은 모르겠다
폐지되어야 합니다. 비효율적,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등 순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비정규직 및 대체직 업무 전체 이관
지나치게 교사의 업무경감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일반직 업무도 지원하는 업무분장을 논의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5개 권역(구미, 안동, 상주, 경산, 포항)별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업무와 중복되는 영역이 있습니다!지역교육청의 학교지원센터에서도 지역내 학교도서관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데 5개 권역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학교도서관 지원 중복되고 있습니다!조율이 필요하다 보니 다!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업무가 학교지원센터라는 특정부서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것 같습니다. 모든부서가 학교지원 업무에 협조하면서 그중 특히 학교지원센터가 학교 현장업무지원에 중심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현재유지되고있는센터의기능은학교현장의 의사를반영하지못하고있으며장하사와 주무관이 직접 지시를받는것이 아닌 두개의팀으로 운영되어 각각의교 무와 행정파트를 지원하된 이원화 지원 즉 교육지원과 와 행정지원과 2개부서 독립지원, 또한 현 센터 구성원은 학교 경험이 짧거나 일반직 ㅁㅇ력이 짧은 분들로 이루어져 학교지원에 대한 경험 부족 으로 학교 경력 십년차 이 상
솔직히 학교지원센터 대체 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은 하는건지두요..
학교지원센터의 확정된 업무 필요하고, 교육행정관에 업무 또한 이관이 필요함
학교 지원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학교지원센터에서 다루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원 간의 갈등 해소, 시설 공사 시 현장 지원, 교육공무직 급여업무 담당, 행정실 업무 과 다 시 업무 지원, 행정직 대체인력풀, 행정실 업무환경 개선,위생/청소/방역 용역 업무 지원, 교사들의 행정 업무 문의에 답변(행정실로 질의가 많음), 대량 도서 등 폐기 시 학교 물품 처 리 지원, 책걸상/교재 등 대량 물건 이동 시 인부 지원, 시설관리 컨설팅
일단 청소하러다니는 거는 교육지원청이 할 일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학교지원센터 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같으며 행정실 인원을 더 넣어주는 것이 옳다
학교현장을 대변할 수있는 구성원도포함되어야한다

학교지원센터가 아니라 교원업무지원센터 아닌가요? 5년~아니 10년 교원 업무경감은 눈에 보이게 줄었고 행정업무경감은? 더 늘어나고 넘어온일과 줄어드는 인력 그리고 더 어려워진 프로그램들. 정말 학교는 교사만 존재하나요?
어떤 사업을 해당 교원이 처음 맡게 되면 업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시와, 가능하다면 현장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교원의 업무경감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학교 및 지원청 구성원 전체가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사항이 빠른시간내에 즉각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장이나 시설관련해서 더더우
기능과 역할이 아직은 미비하다 학교에서 정리하기 싫은 일들을 해주는것이 업무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도서관 책 정리등 등~~~~~
학교지원센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장학사 잡일, 학교 잡일, 일용잡부로 흘러가고 있다. 누구를 위한 학교지원센터인지 모르겠다. 실제로 학교에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도움이 안될시 폐지 하였으면 좋겠다. 엄연히 학교지원센터는 학교 행정실, 교무실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운영하고 정작 학교지원센터에는 교사는 없다
교원지원으로서의 역할만 수행 중이라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주기를 희망
교원뿐만 아니라 행정실의 행정업무 경감도 목적으로 두었으면 함.
학교지원센터 지금 시작운영 되고 있으니깐 조금 두고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
학교지원센터가 교원의 업무경감 뿐아니라 행정직렬의 업무경감에도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원지원센터가 아닌 학교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이 되었음 한다.
무조건적인 업무 이관 지양
장학사 민원회피용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행정지원과와 교육지원과 간의 모호한 업무분장을 학교지원센터에서 다수 배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장학사들이 해야하는 일들과 행정 및 기타 공무원들이 해야하는 업무의 경계가 불명확한 것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교원이 아닌 행정공무원들이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지원센터는 교원과 행정공무원들의 중간에서 그러한 업무들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마음 뭐든지 해준다는 자세
학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순수한 목적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하기 싫은 일을 행정실로 떠넘기는 수단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공무직원 관리(급여, 인사 등)를 학교지원센터에서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가 학교 전체가 아닌 교무업무만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됨. 행정실 업무도 지원해주길 바람. 단순반복적 업무는 학교지원센터에 일반직을 배치하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됨. 오히려 한정된 인원인 일반직들이 더 필요한 곳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실질적인 학교 업무를 줄여주는 방향
학교지원센터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뤄졌으면 좋겠음.
교원뿐만 아니라 행정직 외 모든 직렬이 도움받을 수 있었음 좋겠다.
교사들의 편의만을 위한건 지양해주세요
학교업무의 경감
학교업무정화회의 일환으로 학교업무경감에 목적을 두고 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부서 또한 기피부서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며, 일방적이지 않은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행함이 좋다고 봅니다.
학교 행정실 지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규로 1월에 첫발령을 나면 정말 업무를 익히기 어렵습니다. 신규 교육행정분들이 더 적응하기 편하게 그래서 중도에 퇴사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전문적으로(교육공무직관련업무) 교육지원청(센터)에서 처리해주셨으면합니다.
학교에 실질적이 도움이 되도록 운영 되었으면 함.
장학사나 교원의 보조역할 같은 느낌이라 매우 속상하다
학교에서는 운영 여부에 따른 영향을 모르겠다.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발굴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교원위주로만 진행되는거 같습니다...
교원이 잡무라고 생각하는 일을 행정직이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생님의 권한은 책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본인의 권한을 누리고 싶으면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업무중에서 시설이라고 자꾸 넘어오는 업무들을 학교지원센터에서 가져가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보니, 어떻게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 구체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일을 가져가면서 자료수합을 위해 오히려 학교에 자료 요구요청이 더 많아지거나, 업무에 혼선이 있는것은 아닌지.. 일선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교무실 관련 업무 뿐만 아니라 행정실 관련 업무도 지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설관리직의 업무를 확실히 분장을 시켜 주시고, 본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분들 일을 외부용역과 행정직이 넘겨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기술적인 교육을 시키

고, 이분들이 자기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학교 기피업무에 대한 대행이 아닌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지원센터의 기능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왜 교육지원청에서 해야하는지 이해불가
학교내 갈등의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한 완전한 이관 촉구
교원 업무 경감뿐만이 아닌 행정실의 채용관련 업무도 경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공무직 급여관련은 지역청에서 관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공무직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은 실행되기 어렵다면 퇴직금이라도 지역청에서 한개의 통장으로 관리해야됩니다
일선에 다루어야 할 각종 문제들을 시원하게 상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시설 관리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공무직 퇴직금 관리
센터의 홍보부족으로 모름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음
시설관리 및 특수업무 종류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는 지원센터에서 일괄 관리가 필요하다
일선학교가 필요로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교사업무분담 뿐만 아니라, 행정실 업무분담에도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리직원로서 급식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식기세척기등 자동화 기계가 더 확충되었으면 합니다
학교지원센터의 명확한 기능과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기존의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던 일과 뭐가 다른지.. 중복되는게 아닌지..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가져야할텐데요
학교지원센터에 노무사가 한명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의견 이어서 작성)응당 학교에서 하는 일들은 학교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지원센터를 만들어 보여주기식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교육지원청 전체가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교육청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 부서장 인사 등으로 실적 압박을 주는 듯한 정책도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자체 교육활동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음
학교업무지원: 소학교 시설관리, 기간제교사 채용후 배치, 교직원 호봉재확정 등 학교업무 지원
단순히 보여주기위한 지원센터가 아니라 실제 학교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요청사항 해결 및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업무는 과감히 삭제하여 제대로 된 업무경감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학교지원센터의 업무가 기존 업무와 중복이 많아 조직간의 업무조정 필요. 예) 학교도서관 지원업무는 유초등교육과(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지원센터에서도 지원
학교업무 지원을 적절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업무와 학교지원센터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의 중복으로 업무 조정이 필요함.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학교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교육행정 신규자들이 업무를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멘토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학교는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행정실장 이하 실무인력 1인 학교는 정말 너무 바쁩니다. 이런 현 상황을 실질적인 대안으로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해결 되지 않는 업무(미세먼지 등)를 해결
학교지원센터에서 학교시설관리를 좀 더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방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부분과 행정지원부분의 구분필요, 계약(원가계산등)등 행정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 발굴이 필요함.
학교지원센터가 일부 학교업무를 경감시켜줘야하는건 맞지만 필요이상의 많은 잡무까지도 지원센터로 넘기는건 옳지않음, 또한 교원의 업무경감의 역할만 하는것은 옳지않음.
분쟁이 되는 학교 업무(보건, 환경 외 그레이존 업무)를 지원센터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세부계획, 업무분장, 지원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표준안을 만들어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는 행정적 지원이 많으므로 행정과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무실 업무개선 중심으로 운영, 행정실 업무에 기여하는 바가 없음. 균형을 잡아주시기 바람.
업무의 량을 늘리는 감독적 관리적 부서가 아니라 실무지원 위주 역할 필요
학교에 공무직업무, 재난훈련은 학교지원센터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합니다.
장학사의 잡무처리 업무가 아닌 학교의 업무 지원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교 교원과 행정직의 업무 경감을 동일 비중으로 다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필요한 인력이나 지원이 필요하였을 경우에 보충하는 역할, 특히 지원이 필요한경우(인

	<p>력충원) 에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p> <p>시설관리도 같이지원하여 학교에서 시설물유지보수에 대한 걱정을 덜길 바랍니다</p> <p>학교의 실질적인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교육공무직 급여, 인사 등 일체업무 이관)</p> <p>시설관련 각분야 전문인력을 양성 효율적인 학교시설물관리를 하여 예산낭비등을 줄여야겠다.</p> <p>실질적으로 학교 업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행정 전반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시설관리직의 부재로 인한 시설관련 업무의 교육행정직 업무 부담 증가)</p> <p>학교의 어려움이 잘 소통되도록 새로운 발굴위해 노력해야 됨.</p> <p>교원위주의 업무가 많은것 같은데 행정실 업무 지원과 형편성 있게 진행 했으면 합니다. 사소한 작은 일(즉 과학실 시약 직접 수거)보다는 행정에 꼭 필요한 일들을 연구하여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p> <p>학교지원센터는 교원으로만 이루어져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교지원센터 주무관들의 주업무는 기존 장학사들의 업무를 나누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지원센터가 본 목적대로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학교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행정실의 인원증가가 우선입니다.</p>
[문항23]	<p>노조에 건의할 사항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안건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p>
	학교 업무분장- 학교장 자율 빼고 표준 정하여 주기
	성과금(일괄 된 평가기준 공개, 그렇지않다면 등급없이 균일등급 책정)
	6급들이 실무를 하도록 해주세요. 젊은 6급들이 일을 안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기안숫자를 세든지 실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1명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 행정실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설관리직렬 수목제초작업 예산편성및 사용은 행정실장 재량인 경우가 너무 많다. 시설관리직렬이 집행하고 사용했으면 좋ㄱ쓰고, 목적사업비로 편성하면 좋겠다
	행정업무 경감을위해 힘써주세요 교원업무경감으로 인해 행정직에게 업무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일직자 대체 휴무 지정
	전환직공무원 승직 13년된 분도 아직승직도못하는데 노조에서 건의를해야안되나요7~8년되사람은승직하는데 부탁드립니다
	자유학구제 노선증편에 따른 통학차량증편요청
	학교시설관리직렬분야 문제해결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운전직 매식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해주세요
	조끼나 물품 구입 등 예산을 줄이고 상조시 장례식장에 인력을 2명 3일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경상북도에서는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도점점구체화되고 많아지고있는데 교사업무줄이기위해 행정직이 왜 그걸 떠맡아야하느니 잘 모르겠어요
	지역별 일반직 모임 해체 요청(일반직모임이 큰의미도 없을뿐 아니라 직장 내 소외감조성)
	CCTV, 학교위생관리, 방과후, 호봉 등 교육관련 업무임에도 행정으로 엮어서 자꾸 행정실로 넘기려는 사안에 대해 방어 좀 해주세요. 교원단체는 계속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공무원노조는 뒷집지고 지방공무원들의 권익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지원센터가 실무는 주무관으로 구성되면서 팀장은 장학사로 구성되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게 그것조차 막지 못하네요.ㅠ
	군단위 도서관에 사서직 좀 늘려주십시오 행사에 공모사업에 일은 들어가는데 사서직 두명이서 나눠하는 형편이라 힘이듭니다 업무가 나뉠수있게 사서직정원 좀 늘려주십시오 ㅊ
	학교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보건업무를 법적으로 분석하여 확실히 분장하여 더이상의 분쟁이 없도록 지침화 필요
	시설직렬에대한 업무분장 통일
	일직처우개선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구미지역 승진적체 문제 해결
	인사에 대한 객관성있는 기준에 대한 점수와순위공개
	직무 수당이 좀더 올라야할것 같습니다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특별건강검진비가 너무 적어 큰 도움이 안됩니다. 특별건강검진비 2배 인상 건의합니다.
	기존조리사들의 늦은 승진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5년식 되어도 6급 달지도 못하고 퇴직해야 하는 서글픔 아픔입니다
	위원장님이하 집행부의 많은 노력으로 모든 점에서 향상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의 얼굴은 곧 경교노의 얼굴입니다. 좀더 소통 하시고 조합원들의 말에 귀 기울여 상생할수 있는 노조가 되

길 바랍니다. 저희 지부에서도 적극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위원장님이하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마니 했습니다
보건업무 중 행정실과 업무분장으로 마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에 대하여 if팀을 구성하여 표준업무분장표를 만들어 전체학교에 배포하기를 건의드립니다. 기 싸움으로 학교별로 업무 분장되는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 교직원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행직 관리수당 주세요 교행직 수당만 삭감됨
운전직은 유연근무제 같은 제도도 현실적으로 활용할수 없고 본 직무외에 시설관리업무, 사무업무등 학교전반적 업무에 타직렬과 다르게 신경까지 쓰고 있으나 인사등 처우는 가장 열악합니다! 업무부담이나 근무시간등에 있어 타직렬에 비해 희생을 감수하는데 비해 인사문제는 온적직만 도외시되어 인사적체가 발생하는점 고려해주세요!
늘 회원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초등 학급수기준 행정직렬 정원재배치요청드립니다. 지역1번지 학교는 행정직 정원이 특히필요. 모든예산이 중심학교에 투자되고있음
노조원을 위해 애쓰고 계신점 항상 감사드립니다. ^^
학교 물품검수담당자는 사업담당자가우선적으로 되도록하고각 실별로 분임물품출납원이 당연 지정되도록 물품관리 조례개정
교육행정 전직,전환자 2002년부터 승진자 없는데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또한 관리 운영직군 행정직에 비해 승진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 승진에 박탈감을 느낍니다. 관리운영직군 승진좀 합시다. 관리운영직군 20년이
첫째도 둘째도 현장에 필요한 현 인원 입니다
교육부는 크게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교직원으러 나누어지는 그 처우(호봉등)와 복지가 상식밖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하고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요구 할 수 있는 노조가 되어져야함. 아직도 노조가입이나 활동이 반사회적 행동이나 반조직적행동으로 보여지는 경향들을 타파해나가야 하는 혁신적인 노조정책을 이끌어가야함
인사 투명성이 시급
항상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소고드립니다 특히 시설과니직은 학교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것같이 사무실환경이 열악합니다 인쇄기미쇄면지로인해 — 부탁드립니다 항상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수직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처우 개선
시설과 보건 간에 업무 분쟁이 학교에서는 자주 일어납니다. 명확한 구분을 하는데 도교육청의 지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기록물.교육통계업무는 교무행정사예로 업무이관 요망
신규임용자 및 해당업무를 처음 맡는 사람을 위한 상시로 시청할수있는 사이버교육이 필요하다.
성과상여금 차이를 줄여서면 해요
학생 한명이 폐교위기의 학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자녀 공무원의 특혜를 없애자는 의견은 안들리고 늘리자는 의견이 많았으면 합니다
도교육청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환(전직)자들과의 불평등 해결해주세요(인사 승진 포상 기타 인력확충 등) 도에서 자체적으로 전환(전직)자들을 열외로 놓고 작업하는 경우
학교에서 제일 기피업무가 교육공무직 업무이며, 근로기준법 및 인금협상등으로 수시로 바뀌고 해서 업무에 고충이 많음. 교육 공무직업무는 교육 공무직이 있는 학교도 보는 경우는 대부분없는거 같다. 교육 공무직 업무 담당자에게 공무직업무 수당을 지급해한다. 업무자들의 자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현재 매우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임원들 너무 고생이십니다. 파이팅!
가장 바쁜 회계말인 1월에 발령되는 신규임용 절차를 개선해주시시오. 적어도 신규가 바로 실무에 뛰는 대신에 그에 대한 보완책이나 책임 경감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주시시오. 아니면 적어도 회계연도 종료 후인 3월 이후에 신규 발령 내도록 인사과에 건의해주시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규가 교육행정직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필수보직기간 1년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조리직렬입니다. 3식학교 관련 질문드립니다. 다자녀이고(막내가 14개월)인데 순번에 의해 가야합니다. 다자녀일경우 막내가 36개월이전에는 3식학교 유예할수 있어야합니다.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있는 환경마련 부탁드립니다. 경북교육감님 공약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니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한 사람들 중 추천해서 문화상품권주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사이버연수도 연수 차시를 교사처럼 100프로센터 다 인정해 주었음 좋겠 공개채용 시험감독을 기존 지역을 탈피 타 지역의 교행인 적극 참여하여 기존 지역 교행인들의 책임과 부담을 덜어주기 바람. 교사처럼 사이버연수 차시 100프로 인정 바람. 유치원임차 차량도 교육지원청 대행 바람.
일직자 대체휴무부여 건에 대해 심도깊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거리 출퇴근으로 많이 힘들어 일과 가정 양립하기 너무 힘듭니다. 필수보직기간 1년으로 변경 필요합니다
공채량 기능전환직이람 승진시 따로 관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채는 기능전환직 경력을 따

라 잡을수가 없어요.
주무관들 간의 업무분장의 애로사항도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과 행정과의 업무분장 갈등으로 많이 힘듭니다. 방역 공기질 물관리 등 자기 업무가 아니라 하고 보건 고유의 업무만 하겠다 합니다. 보건과 행정 간에 서로 전체적인 협의나 지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홀로실장 근무가점을 최소 도교육청 근무가점 수준이 되게 해야합니다
지역청 주말 일직 여성 공무원도 5일 이내 반일~1일휴무 보장 희망합니다.
시설 및 공업직렬 기술정보수당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 살펴주셔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여태껏 노조 중 제일 열심히 하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보직기간이 하루 빨리 1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음 좋겠다 모든 교육행정직의 바람이다
보건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 관련 업무(분장업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업무개선이 되어 원활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옵고자 건의를 올립니다.
결원 문제 해결
어느기관 상관없이 6급이 실무를 하도록 건의, 점검강화(물품천만원이상, 공사 천오백만원 이상, 예산업무), 실무를 안하니 아는것이 없음. 6급이상 갑질 교육 강화해주세요
노조에서 지금까지는 행정직 처우개선을 많이 했다고 판단됩니다. 하여 이제는 승진 기회 확대 등 기술직의 처우개선에 힘써 주셔야 합니다. 경력은 많으나 승진기회는 없어 박탈감과 근무의욕이 바닥임.
분교관리 학교 발령시 검임 발령 근무평정시 가점부여
타시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를 교무부쪽에서도하는데 경북은 행정실이 당연한듯 업무분장돼있는데 번갈아하던지 개선방안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소수집단인 근무 교육행정직 처우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학교 및 행정실이 분리된 학교근무자의 처우개선 및 전보가점을 요구합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 투명화 공정성 강화
계약직이 일반직보다 인사상우위에 있다
공무원 복지도 중요하지만 안일한 공무원 기강확립도 중요
전직행정직 승진 근무기간 인정해서 승진해야한다고생각함 시설운전 공무원 보다 처우개선이미흡하다고생각함
학교 근무 시에 영양교사와 보건교사의 업무전가문제가 극심합니다. 법제화 등을 통해 하루빨리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었으면 합니다.
공무원 갑질예방 체계적 실천 및 공무원 급여 교육청이전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청 단위 보건직렬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하여 업무를 너무 행정지원과로 넘깁니다.
일요일 일직후 그 다음주 연속6일 근무는 업무효율성이 떨어짐
관리수당 증액 및 5급 행정실장도 지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도 급식소쪽만 교장? ,행정은 행정실장이라고 여기는 학교가 있습니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학습휴가, 일직휴무 꼭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필수근무기간 1년인데 일반직은 1년반으로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보직 1년으로 변경되도록 노력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제도 개선. 교원처럼 점수제로 했으면....
행정실무원 정말 필요합니다. 뽑게 해주세요. 교무행정사만큼 필요하며 일반공무원이 안하는 일해줍니다. 정원이 있음에도 못뽑게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행정직원들 다 바라는 바입니다.
시설관리직을 대신해 시설직을 뽑아 학교의 시설관련 업무(예사, 집행,관리감독 등) 전문적으로 학교시설을 관리하고 행정직의 업무경감에 더 도움됨
노조원들을 위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렴한 노조비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수당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수당 없는 자리도 많구요. 물가 상승 반영 해주세요. 8-9급들은 공무원보다도 기본급이 작습니다. 사기 저하됩니다. 일직 대체휴무, 기관 근무자 학습휴가 등 개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근무자들은 근무시간도 짧은데 더 많은 혜택을 받고있는 거 같아요. 기관 근무자들 근무여건 개선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직 미배치학교에 대한 예산증액필요
일반행정직이 시설관련 업무를 너무 많이 하고있어 시설관리직 인원 충당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직렬을 위한 방향보다는 조합원 최약소 조합원을 위한 방향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일례로 국가의 최대 취약계층 모슬은 그사회와 국가의 가장 단적인 복지를 보여준다합니다. 모든 행정또한 그래야 한다 생각합니다 교육청 노조또한 가장 취약 직렬들을 위한 처우에 노력해주시

기 바랍니다
운전직을 줄이고 지입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나중예지입차가 그만큼에 운행못 한다하면 대책은 있는가싶네요 운전직을 어느정도는 유지하고 늘려줘야 될것같네요
교원업무경감 지긋지긋합니다. 결국은 우리보고 다 떠안으란 얘기죠. 수당 많이 뺏어와 주세요
뭔 기대를 하겠습니까. 운전직 승진에 대한 불만도 불만이지만 그 사소한 위험수당도 추진이 안되는데 회비내고 누가 허수아비 노릇만 하겠습니까.
지역청 일직자 당직휴무실시 적극반영해 주세요. 성과금 지급 관련도 경력순도 아닌. 부속실. 지급부서 직원들이 우선 순위로 정해지는것도 불공평합니다. 항상 답변하기좋은 말 역량평가에서 차이가 난다네요.
새로운 업무는 늘어나는데 줄어드는 업무는 거의 없음. 교무행정사료무표준안제정 바람
지역노조지부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 사서직렬 민원응대수당 지급
행정실 행정업무 인원은 최소 3명은 확보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 추진하심에 많은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노조원들 사기직작을 의한 노력 필요함
승진시 구미나 포항같은 큰지역은 승진인원을 비율로 하던 늘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큰곳은 일이 군지역 이런데 비해서 일이 많은것을 감안하면 좋겠다
연수경비의 인정범위를 자기계발등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행정실 정원 확대 결원해소 ,근무기관 규모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학급수 많은 학교에 큰평,수당 등 인센티브 필요), 일선학교에 시설직렬 인원 배치하여 학교 시설공사 전문적 업무처리(순회하면서 학교 공사업무 처리,영양교사처럼) 공무직 업무 교육청 이관 및 급여 등 관리 시스템화 시급 학교내 교사 및 공무직 집단 속 교행 보호 각종 지침필요
시설관리 외부용역비에 대해 명시적인 권한이 없으면 변하는건 없음. 행정실에서 전해들은 바도 없고 실질적인 개선도 느끼지 못함.
6급이하 지역만기가 10년인데 퇴직전 유예기간을 2년이상으로 해서 현근무지역에서 퇴직할수있는 방안 마련
자율연수비가 꼭 직무 관련 아니어도 좀 폭넓게 인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부용역비 예산이 충분하가아닌 최소한의 금액으로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수립시 시설관리직의 의견이 좀 더 수용되었으면 합니다. 조합원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조집행부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경북교육노조 직무교육 사이버 교육 회수증 실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그러하듯 처우개선에 관심가지고 해결에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들을 위한 노고에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자 전보점수 시 최소 하한점이라도 부여하면 좋겠어요
학교근무 행정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업무가 차석에게 집중되어있는 문제를 좀 개선할수 있도록해주세요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어 처우개선이 충분이 되었는데도 예전같은 업무분장 방식은 불합리합니다
피복비를 못지급받은분이 종종있다하던데 일괄수당으로 지급해주세요
현재까지 노조활동에 만족합니다. 항상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실무원은 정원이 있어도 정년퇴직하고 나가면 소멸직종이라 채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행정실은 교원이나 실무직 직종보다 업무강도가 높고 인원도 부족한데 행정실무원이 꼭 의무채용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교간 전보직종에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조리직렬 공채채용시 현장실습연수제도마련 · 급식현장에서 이루어지고있는 갑질방지개선 ·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단위단가표 및 예산 편성기준 조정을 건의합니다.
인간은평등하다고생각하는데 운전시설조리직렬5급신설을강력하게추진합시다
휴일근무수당과 새벽 근무 저녁근무 야간수당 확보해주세요
행정실 업무 분장의 명확화와 업무 분장의 공평성을 다루었으면. 학교의 안전관련 책임이 학교장이 아닌 행정실장에게 떠넘기는 부분도 논의되었으면 함. 마지막으로 인사이동이 3월, 9월에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시설공문 진짜 받기 싫고 이거 왜 행정이 다 처리해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학교지원센터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습니다.
시설관리직의 명칭을 적절히 개선하여 외근직 채용해주세요
일반직 인원 배치기준의 경계선에서 한두학년 모자란 기관에서 근무자는 업무부담이 큰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 급여 관련해서도 일률적인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외전보점수 작성시 관내내에서 이동된 지역 전보점수는 100%인정해 주었으면합니다.
신설학교 행정실근무인원 증원해주시면좋겠습니다 업무에 비해 두명은 무리입니다 모든게 처음이라할일이많은거에비해 두명이서는 업무과중입니다
일직,숙직 구분없이 휴일근무 했을 시 휴무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학교 규모가 큰곳은 행정실무원을 배치시켜줬으면 좋겠다

노조의 존재 원리는 조합원의 권익과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고생 많으신데 수고하십시 오^^
노조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각 직렬마다 나름 고충은 있겠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 적인 판단으로 관철했으면 합니다
2명 소수 인원으로 근무하는 학교 행정실 업무량 과다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주세요. 업무 량 대비 교사/교육공무직과 대비하여 급여가 너무 열악합니다. 시설관리직이 따로 있음에도 여성 직원 이시설관리업무 하는 경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소한 전등 갈기 등은 누가 해야 하나요? 시설관리직이 시설과에서 오는 공문들을 모두 처리하고 각종 용역을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업무분장(특히, 보건교사)와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노조에서 좀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항상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노조여러분들..감사합니다
학교지원센터는 교사들만의 업무감소센터 입니다. 명칭을 변경하세요 교사업무지원센터라고. 왜 그 지원센터에는 교행이 업무지원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 교사들이 행정실이 해야할 일을 자기들이 하는것처럼 학교에서 업무를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교사가 하기싫은, 하기 어려운일은 교행은 하기 쉬운 일인가요? 교행업무지원센터 없나? 그럼 거기는 교사들이 업무 합?
학교에 시설직이 있어도 시설 관련 공문이나 업무는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직이 하고 있 습니다. 시설직에게 해당 업무를 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게 하거나, 상급기관에서 전문가가 와 서 봤으면 합니다. 해당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직이 시설 관련 전문용어를 하나씩 익혀서 업무 를 담당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시설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설관리직렬 미발령으로 인한 교육행정직렬의 업무 부담이 심함. 특히나 경북의 경우 동산어 촌이 많은 편인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매우 힘든 실정임.
단순 토익, 엑셀 같은것만이 공무원 역량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각종 취미활동 도 인정해줬으면 함
노조에서 현장을 가끔씩 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서직 직속기관 6급 정원증원 부탁드립니다~
위에 덧붙여 쓰면 학교지원센터 인원에는 교사반, 행정직 반으로 운영해야 하며 장학사가 센 터장이 되니까 장학사 업무 뒤흔다 거리 하고 있다. 결국 그 인원 만큼 우리 교육행정직 업무 를 다른 사람들이 떠 맡아 일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노조에서 도와 주십시오
16학급 정원이 현재 2명 입니다. 현재 16학급에 근무하고 있는데 정말 모든일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에게 교육행정 만족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정원 조정이 필요 합니다
지역청 근평의 기준이 제각각이고 비공개여서 승진순위의 기준에 박탈감과 소외감이 큼
외부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많고 그걸 사용하자고 해도 그걸 왜 사용해야하고 하 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예산 사용 전에 인식개선이 우선인거 같습니다
사무운영직렬 처우개선 필요(행정업무는 똑 같이 일하고, 30년이 넘어도 사무 7급으로 있어 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무직보다 임금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종일 일에 묻혀 있느라 설문할 시간도 없는게 일 폭탄맞은 실무자들의 실정이다. 모든 부서들 의 업무량의 형평성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행한 설문조사의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노조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무실-행정실 업무분장 명확(특히 보건), 자율연수비 인정범위 확대, 학교운영지원수당 개선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13조 전보기준에서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시 전보한다고 되어있 는데 이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원은 5년까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있다고 들었습 니다. 애착이 가는 학교에 더 근무하고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도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수보직기간이 2년에서 1년 6개월로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양한 기 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수보직기간이 1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지발령이 나면 직무에 관련된 교육이 있었으면 합니다. 책보고 할려니 힘드네요. 수고하셔어 요.
이번 노조는 다들 다르다고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학교운영지원수당이 사라졌는데 교원과 공무원원은 수당 전액을 보 전받았으나 지방공무원들은 수당이 줄었습니다. 급여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한 기관 최대근무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으면 한다. 3년으로 되어있지만 1년 적응하면 다음 어 디로 이동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어 3년 만기를 채우기 쉽지않을뿐더러,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과 완성도가 부족하다. 자율연수비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면 한다. 건강한 신체가 깃들어야 건강한 직장생활이 가능한만큼 체육시설에서 사용가능하도록 범위확대를 기 대한다
시설관리직 채용 공고문 업무 표기 삭제, 성과급 지급시 직렬 및 계급별로 평가하는 것이 형 평성에 맞음.
교육행정기관 일직근무 시 주중 대체휴무 실시, 교육행정기관 학습휴가 3일 부여
교육행정직을 재회한 만기 근무년수를 최대한 조정 하였음 합니다..
보건교사와의 갈등거리가 되는 소독(방역), 먹는물, 저수조, 공기질 등의 환경위생업무가 보건 교사의 업무임을 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히 해주도록 노조에서 건의해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업무분장시 교육행정직에게만 예산, 지출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운영직들도 그동안 쌓아 놓은 업무지식과 그누구보다도 잘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시 교육행정직에게도 다른 업무들이 부여될수 있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눈치보지않는 유연근무시간을 쓸수 있도록 공문발송 부탁드립니다. 초등1학년
2021.7.1.자 6급승진인원을 많이 확보해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가려운 곳도 살펴야 합니다..
이번 7.1.자 6급 승진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필수보직 기간 1년으로 꼭 바꿔주세요. 1년 6개월은 말이 1년 6개월이지 사실상 2년이나 다름 없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공무원 모두 필수보직기간이 1년인데 교육행정만 1년 6개월 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직 근무자 대체 휴무 실시
일직도 대체휴무 주시고 학교지원센터의 업무와 학교와의 연계성에 좀더 노력해야겠다
지역 인사발령시 관내 소속기관(지역청,학교 등)의 만기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내신전보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어느 학교, 어느 자리가 만기인지 알고 싶을 때, 그 지역 사람이 아니거나 급수가 낮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경우 정보취득에 어려움을 겪음)
분교장이 있는 학교 행정실 직원들도 겸임발령 바랍니다. 교장,교감선생님은 겸임발령인데 행정실직원은 겸임발령이 아니라 불편하고, 일거리도 너무 많습니다.
14번 문항은 시설관리직렬에만 의견을 물을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행정직(실장)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아야할 사안이 아닌가 싶네요. 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율연수경비 인정범위 확대 요청(체력증진 등)
학교에서는 보건교사와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공기청정기, 수질검사, 미세먼지, 방역, 저수조청소, 석면 등 정확한 업무분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율연수비는 사용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서, 교사의 특수분야직무연수경비처럼 사용처를 확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필수보직기간은 예전처럼 1년으로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시설관리직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정실장의 역할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요즘 책임지지 않으려는 실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 실장들처럼 실무는 안하려고하면서(공문접수, 기안 등) 또 책임지고 관리자로서 서명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차석들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서장으로서는 직위가 생긴만큼, 그에 대한 역할도 분명히 체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각 기관 업무분장 표준안을 연 1회 업데이트하고 업무분장 현황 보고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출받고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학교 학생수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해 주십시오. 학급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을 수 있으니, 학생수에 따라서, 행정인력의 정원을 배분시켜 주십시오.
교육공무직원 관리의 일원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일선학교에서 교육지원청단위로의 업무이관을 요청합니다. 교육공무직원과 관련한 업무는 1차적인 교육행정 고유의 업무가 아니며, 그럼에도 교육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본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의 것들이 많아 학교마다 담당자들간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직비가 오를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고등학교 정기승급 도교육청에서 실시
교육공무직 관련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임금및 근무일 산정통지서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느건 바쁜시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공무직관련 매년 인사기록 정비를 담당자가 하는것도 힘이 듭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 주세요!
사무운영직렬은 시설,조리직렬에 비해 경력도 많은데 6급 승진이 너무 늦습니다. 승진확대부탁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주무관이 간사나 운영에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및 간사 모두 장학사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관은 행정업무를 할 수 있게 인력낭비 되지 않도록 처우개선, 도와주세요.
사무운영 승진 정원을 늘려주세요. 사기가 많이 저하됩니다
일선 학교에서 보건교사와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먹는물, 미세먼지, 방역, 소독등 노조측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운영직렬은 시설,조리직렬에 비해 경력도 많은데 6급 승진이 너무 늦습니다. 승진확대부탁 합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일선학교 업무경감과 관련하여 교원업무뿐 아니라 일반행정직 업무경감도 같이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 3천만원 이상은 모두 교육청에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직 공무원 증원에 매우 찬성합니다.
시설관리직 6급 승진 및 처우개선
연가사용을 연10일이상 강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연가는 공무원이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휴가인데 4급, 5급 성과지표 및 실적평가에 들어가 있으니 연가를 10일이상 쓰게끔 강요하게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기관(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직속기관) 학교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보았으면 합니다.

직렬에 관계없이 승진시 보직 대우가 필요하다
사무운영직렬은 시설, 조리직렬에 비해 경력도 많은데 6급 승진이 너무 늦습니다. 승진 확대 부탁드립니다.
시설이건 사서이건 모든 노동회원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랍니다
호봉상한제 폐지를 적극 건의합니다
일반직 전환(전직)자들이 승진 관련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기존 일반직에 비해 순위가 많이 뒤쳐지는거 같습니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조리직렬은 영양교사와 조리원들 사이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조리사 권한을 강화할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법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관리에서 행정직으로 전직한 사람들 승진 소요연수에 전직전 경력을 인정해 주셔요 지금 상황에선 퇴직때까지 6급승진을 못하고 퇴직할것 같아요 사무관리로 있었으면 벌써 승진하고도 남았을 경력인데(38년 근무)
늘 최선을 다하여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율연수 경비를 일반 도서구입이나 운동분야도 사용할수있게 되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이전 노조들보다 더 왕성한 활동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노조의 노력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주말 일직 시 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도 더욱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당직 관련 - 숙직은 당직수당도 받고 대체휴무까지 있으나, 일직은 당직수당을 올려주는 정도가 적당. 법규정상 당직수당과 대체휴무 모두 허용되는지 법률 해석 필요. 2) 다자녀 혜택 - 승진, 희망근무지 등에 이중 혜택을 주고 있어 그에 따른 다른 사람의 희생이 따름. 3) 자율연수 경비 20만원 지급보다는 복지포인트 10만원 일괄 상향해줬으면...
자율연수비 사용 시 직렬 관련 도서 구입도 포함 되었으면 합니다.
승진이 최우선 아닐까요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문제를 바로 잡아주기를 건의합니다. 1) 성과급 지급 방식에 대한 불합리함과 차별(일반직, 기능직 차별 및 불합리함) 2) 특수직무수당에 대한 불합리함과 차별에 대한 시정 및 소급적용을 요구합니다. 3) 공무원에 대한 노무강요 및 인사차별에 대해 근절을 요청합니다 4) 채용공고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사무운영 승진확대 부탁드립니다.
인사 교류기간을 필수 1년, 최대 5년으로 하여 인사의 유동성이 좀더 좋아졌으면 합니다.
6급 승진 자리 확대
사서직 처우개선으로 2020년에는 주말일용인부임이 재원배분으로 배정되었으나, 2021년에는 재원배분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임. 지속적인 예산 편성 필요
주말 일용인부임금 예산을 재원배분 사업으로 도서관 예산과 분리되면 좋겠음.
유치원급식식 인원배치에 대해 대대적인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지방공무원에게도 노트북 지원, 자율연수비 사용 범위 확대(운동, 음악, 도서구입 등)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렬의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학교와 비교시 수당이 없고, 도서관 근무시 근무조를 짜서 돌아가기 때문에 주말에도 근무하는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율연수를 월로 지급했으면 합니다.(뭔가 해 볼려고 해도 터무니 없이 모자라서 못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공무직 퇴직금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전출입시 학교에서 처리해야할 업무가 너무 많음)
운전직렬 상위직급 더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조리 직력과 타도지역에 비해 많이 적다고 봅니다.
신규나 저연차 직원의 업무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학차량 운전원 들의 급식 수송에 따른 위험 부담에 따른 수당을 지급 하도록 하세요.
초중고 인원배정이 적절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행정직 인원이 너무 적어요
항상 노조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많은 고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수 직열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합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늘 노조원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도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신규회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 받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업무와 관련이 아니라도, 취미 활동, 각종 도서구입 공무원으로써 소양을 쌓는데 필요한 서적도 인정되었으면 합니다.
자율연수경비 범위를 조금 확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목소리에 늘 귀기울여주시고 좀 더 나은 처우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현 노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보직기간 관련으로 예전처럼 1년 기간으로 다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1년을 희망하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행정실과 교사 간에 걸처지는 업무를 분명히 정히 해줘야 함. 행정실 정원 관련 문제 해결(행정인력2명으로 운영하는 학생수 맥심법 학교는 인력을 더 배치 할 수 있도록 요청) 자율연수경비를 맞춤형복지비로 적용 요청
조리직, 사서직 등 다른 소수직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가듯 시설관리직렬도 눈에 띄는 처우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노조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형태의갑질근절
시설관리직 호칭문제 개선 필요. 단순 노무작업 배제 필요.
학교시설관리지원팀 시도는 노조에서 적극 막아주세요...일반직 공무원을 끌어모아서 운전시키고 노무시키겠다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지금도 분하고 치가떨립니다..이런 교육청의 말도 안되는 시도에 침묵하거나, 묵인 또는 동조 내지 방조한다면 경북교육청 노동조합의 미래는 볼것도없습니다..공무원이면 제발 법률 법령은 꼭 지키면서 일했으면 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렬에 대한 복무(연가, 조퇴, 특별휴가) 등을 방학이 아닐때도 사용할수 있도록 보장해줘야함 일부교장들은 교사기준으로 생각해 방학이 아닐때 특별휴가, 연가 등을 사용못하게하는데 인식개선이 필요함. 또한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업무 회피는 큰 문제로 보임 교육행정의 업무과중화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운전직렬도 기사라고 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앨범에도 운전기사라고 박아 넣는 수준입니다. 운전원이라는 호칭 수정해주세요. 최소 주무관으로는 호칭하도록요. 수고하세요.
근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희망합니다.
시설관리직 6급 승진 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학교 지원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복지 또한 중요하다. 먼저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에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자율연수경비를 선지급하고 영수증 후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어린이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전보우선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근속가호봉을 일반직공무원에게도 적용이 되도록 해 주세요.
일정 학급이상 유치원 병설학교 행정실 인원 충원 요청.
활발한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각 학교 6급 행정실장님들은 아직도 업무를 안하고 결재만 클릭하고 계십니다. 행정실장님들도 업무분장이 되어서 업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바빠서 맨날 야근하는데 실장님은 할 일없으셔서 너무 심심해하시네요.
역차별의 현장을 잘 살펴해주시시오. 늘 수고해주시는 노조위원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 미배치교의 경우 시설관리 용역을 채용하려 하여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 일회성, 단기간 인력만 채용할 수 있고 사실상 인력 채용이 불가능 혹은 불허될 경우 행정실장이 사무업무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업무까지 맡아야 되는 것은 행정실의 업무가 과중되는 현실입니다. 끝으로 나홀로 실장 해소에 적극 적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학교 교원이 방학이 있어 차별이 느껴집니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습휴가를 더 늘려주시시오.
행정직 공무원이 다른 시도로 지원해서 합격하면 갈수 있도록 일방전출이 허용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배우자가 아파서 가야할 특별한 경우에는 특히 더 일방전출 허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원으로 27호봉인데 아직 7급입니다.....조속히 승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 주요 업무가 직접수행하는 노동보다 일반직으로서 정신적업무가 주가될수있는 생각의 틀이 바뀌길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비로 행정실 일반직에게 지급되는 고등학교 관리수당, 출납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무상교육실시의 좋은 취지가 소속 행정실 일반직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처분임. 이에 일반직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당 부지급에 대한 내용을 단체교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에게는 계속하여 지급하면서 일반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일것입니다.
연금법 개정에 의하여 내년부터 정년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합의점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규모학교에도 시설관리직렬의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특히 울릉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주었으면합니다. 지역 여건상 계약직 근로자 채용하가가 힘든 상황입니다.
믿지 못하면 자율경비연수를 없애십시오. 서류 하는데 너무 번거롭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온라인 강의를 개설해 직원들에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니면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시던지요.
사서직렬 사서수당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자율연수경비 인정범위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원거리 근무보다 자택에 가까운 지역에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지는 일을 최소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항 구미 승진적체 해결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현장을 잘 살펴보고 직렬 차별없는 노조로 만들어 가 주시기바랍니다.